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6호 【루게 제24824호】 주제 104 (2015)년 2월 15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과학자, 교육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내세워주시며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미래과학자거리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용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신 다음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선 대동강호안도로를 축으로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건설하여 웅근 하나의 거리를 형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



가까운 앞날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훌륭히 일신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증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미래과학자거리건설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인민 무력부 부부장인 룡군 중장 김정관동지를 비롯한 건설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중에서 건설장을 내려다보면서 만족하였는데 현지에서 보는 광경은 더욱 웅장하고 불만 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자거리건설을 위해 직접 조선인민군 제521건설사단을 특별히 조직하시어 현지에 파견해주시였으며 공사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에 심장의 피를 끓이며 6개월간 착공

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없는 총돌격전을 벌려온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방대한 1단계 건설공사가 85%수준에 도달함으로써 태양절까지 완공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전용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

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용기안에서 건설장의 전경을 내려다보시면서 땅에서 비준해준 거리형성안의 요구대로 건축물들을 들여앉히니 정말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간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인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1단계에 완공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골조가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하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1970년대, 1980년대의 건설전투장을 방불케 한다고, 이곳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쪽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단계 건설도 잘해야 1단계에 건설할 대상들이 빛이 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2단계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중에서 날로 변모되어가는 평양시의 웅장 화려한 자태를 보시면서 이런 속도로 나가면

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고 77호동 3층 1호, 지열취수뿔프장 등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1단계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힘있게 파시하는 거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을 맡은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하겠다는 립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과학자거리를 상징할수 있게 독특하게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비품들도 최상의 수준에서 제작하여 놓아주며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도 구색에 맞게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번에서 계속

설계상, 공법상요구대로 건축공사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대동강호안정리와 주변복화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진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을 올해 태양절까지, 2단계 건설은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인민군대의 건설력량을 더 증강하며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

거리건설장은 우리 당 건설정책의 정당성, 우리 인민의 문명척도, 군민의 정신력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명도밑에 최근시기 사회주의

대건설장들마다에서는 여기 과학자거리 건설장과 마찬가지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겨울의

주위속에서도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비행기에서도, 현장에서 보면서 저렇듯 강하고 충직한 전사들이 있기에 당의 부강조국건설

바라시는대로 미래과학자거리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선물을 보내주셨다. 새로운 영화혁명의 불길을 만화영화창작에서부터 세차게 일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11월 몹소 촬영소에 나오셔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좋아하는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다.

선군혁명령도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만화영화창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불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촬영소의 현대화, 과학화, 콤포지트화, 수자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4일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촬영소일군들, 창작자, 예술인,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김기남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선물에는 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자, 예술인들이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만화영화대국으로 빛내일 열정과 투지를 안고 창작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그것을 불씨로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어나가는데서 기수가 되기를 바라는는 승고한 뜻이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창작자, 예술인, 종업원들은 촬영소에 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높이 받들고 만화영화창작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이어 부총장 량정철, 단장 윤창남, 실장 김정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충성되게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촬영소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자, 예술인,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선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 세기 영화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불씨로 새겨안고 어린이들의 특성과 우리 인민의 사상과 감정정서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만화영화화를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창작완성할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보통의 실력이나 속도, 상상력으로서는 당에서 준 과업을 완철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만화영화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재능과 열정을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과학기술성과 수단들을 만화영화창작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촬영소를 최첨단수준의 세계적인 만화영화 제작기지로 꾸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 명 활 동 소 식 을

여 러 나 라 에 서 보 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7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 3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교시에 따라 1947년에 조직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리해안의 예지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동서해함대에는 그 어떤 전투합선들도 짧은 기간에 수리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해군부력 강화발전에서 10월3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선박소유공장의 본보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란의 신문 《이란 데일리》,

이리브방송, 만나의 통신, 신문 《그 글로브 뉴 라이트 오브 만마》, 인디아신문들인 《에코노미크 타임스》, 《인디아 엑스프레스》, 캄보디아신문 《꼭 쏬베피엠텐》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켓트시험발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최 후 승 리 를 향 해 힘 차 게 전진하는 조선

외 국 인 들 의 반 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력과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목격한 외국인들이 경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메히코로동당대표단 단장 알베르도 아야냐 구미에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옹호하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어있다. 뜨거운 애국주의정신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닌 인민이기에 오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성을 지향하는 발전도상나라인 민들에게 고무적임을 안겨주고 있다.

방문을 통하여 조선식사회주의의 불멸성의 요인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몽골주체연구센터대표단 단장 느, 볼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혁명적대교조의 열정이 세차게 불타고있다. 조선인민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있다.

그들은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며 이르는 곳마다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대기하고있다.

이것은 군대와 인민의 강한 결속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

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파랑치며 물리치며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믿는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세이크 라피쿨 이슬람 바블루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은 방멸할 때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힘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끼고 있다.

임시단결과 선군의 위력이 있기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조선을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엄화동지의 가족,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엄화동지의 가족,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 일조우호 효교현민의 회, 일조우호 시교우편락회, 일본 미야기현일조우호친선협회와 나이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14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백두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하자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승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선군혁명위업의 최우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13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필승의 기상이 차넘치는 광장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심으로 총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무력강화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 나가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앞장서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이 되자!》 등의 구호관들이 광장에 세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추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으며 그 광양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대회에는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광장에 《장군님은 태양이요 영생하신다》의 노래주악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위상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제이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승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결의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 일흔년과 당장전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승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빛나게 완성해나가실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세적인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를 떠사오애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선군정책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면서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풀없이 총지한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뛰어난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군인들은 자신의 아들딸이며 사랑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병사들을 찾아 이 나라의 산과 평을 다 넘으며 사랑을 주시고 믿음과 정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 따스로운 그 품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현명성 조국과 인민의 위력으로 강성병영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조선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꽃피어 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절세의 선군태양, 민족민대의 은인요 천만년 영생하신것이다.

연설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백두의 대업을 이룩할심본은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한분뿐이시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제일전위대, 제일결사대가 되어야 한다.

전군이 당의 유일적령명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중7면대형호쟁취운동과 군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권력강화의 4대전략적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연설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이 영원 불멸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제 11군단장인 육군중장 김영복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군단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독일명원을 기이여 실현하고 성스러운 군기를 휘날리며 승리의 열혈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열의에 단결되어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2월 부대를 찾오시어 5대훈원방함을 계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군의 만아들부대라고 애도하고 선언하였다.

애도군장병들은 결전의 시각이 오면 적합한 집단들의 중추를 호되게 당겨서 등허리를 무시비하게 꿰어놓음으로써 침략자들을 검후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해군 부사령관인 해군소장 허상문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우러르며 해군장병들은 주체적해군부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장군들의 불멸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제 11군단장인 육군중장 김영복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군단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독일명원을 기이여 실현하고 성스러운 군기를 휘날리며 승리의 열혈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열의에 단결되어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2월 부대를 찾오시어 5대훈원방함을 계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군의 만아들부대라고 애도하고 선언하였다.

애도군장병들은 결전의 시각이 오면 적합한 집단들의 중추를 호되게 당겨서 등허리를 무시비하게 꿰어놓음으로써 침략자들을 검후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제 11군단장인 육군중장 김영복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군단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독일명원을 기이여 실현하고 성스러운 군기를 휘날리며 승리의 열혈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열의에 단결되어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2월 부대를 찾오시어 5대훈원방함을 계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군의 만아들부대라고 애도하고 선언하였다.

애도군장병들은 결전의 시각이 오면 적합한 집단들의 중추를 호되게 당겨서 등허리를 무시비하게 꿰어놓음으로써 침략자들을 검후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해군 부사령관인 해군소장 허상문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우러르며 해군장병들은 주체적해군부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장군들의 불멸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제 11군단장인 육군중장 김영복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군단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독일명원을 기이여 실현하고 성스러운 군기를 휘날리며 승리의 열혈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열의에 단결되어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2월 부대를 찾오시어 5대훈원방함을 계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군의 만아들부대라고 애도하고 선언하였다.

애도군장병들은 결전의 시각이 오면 적합한 집단들의 중추를 호되게 당겨서 등허리를 무시비하게 꿰어놓음으로써 침략자들을 검후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제 11군단장인 육군중장 김영복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군단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독일명원을 기이여 실현하고 성스러운 군기를 휘날리며 승리의 열혈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열의에 단결되어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2월 부대를 찾오시어 5대훈원방함을 계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군의 만아들부대라고 애도하고 선언하였다.

애도군장병들은 결전의 시각이 오면 적합한 집단들의 중추를 호되게 당겨서 등허리를 무시비하게 꿰어놓음으로써 침략자들을 검후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것이라고 말했다.

통쾌히 수장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무장간첩 《우에블로》호를 나포하여 영원히 코를 꿰어놓은 1960년대 영웅해병들처럼 세계해전사의 신화를 창조하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최후승리의 보고를 올릴 맹세를 다지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상장 최영호는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하늘용사들을 들이치며 훈장을 받들어온 사랑까지 합쳐 믿음과 정을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손길아래 항공군은 육탄,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불사조들의 전투대로로 자라났다고 말했다.

당의 명령판철을 위한이러면 구름속 만리, 불길속 만리라도 뚫고나갈수 불굴의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는 전체 비행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출격명만을 기다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단적제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비행대는 적들이 조공이라도 움켜잡으면 침략의 본거지들에 백두의 칼바람같이 단숨에 날아들어 가슴우편히 불바탕해버리겠다.

이제 세계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당력과 배양을 그대로 닮은 선군조선의 참매들의 무자비한 징벌타격에 제국주의귀리대들의 《공중신화》가 어떻게 산산조각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우리들은 미제의 최후결사전에서 김정은비행대의 하늘신화를 창조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따라 백승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더욱 빛내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들은 미제의 최후결사전에서 김정은비행대의 하늘신화를 창조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따라 백승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더욱 빛내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상장 김갑결은 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강위력한 공중으로 자라난 전략군은 반미대결전을 총출진할 필적의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우리의 전략로켓트들은 발사명령이 내리면 번개같이 솟구쳐올라 미제침략군과 더불어 주주들, 모든 전쟁장비들을 강리도 축약해버릴것이다.

미제는 지금껏 맞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참병을 제몸에 소골에서 당겨볼 것인데 세계는 허장장사하던 미제국주의가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천하제일명장의 령도를 받는 전략군은 우리 식의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반드시 미제의 침략사에 멸망의 종지부를 찍을것이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대회에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노래주악이 울렸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휘날리며 김일성, 김정일대원, 김정은혁명강군의 불멸의 위력으로 백두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자할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업적 혁명의 성지와 더불어 영원하리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둔 인민의 마음은 백두산밀영으로 끌려오고달린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으로 역사에 전무후무한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어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존엄을 누리에 빛내어 주신 위대한 백두산장군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려 천만군이 부르는 위인칭송의 송가, 김정일장군한가 2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진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어 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깎고 버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철세의 애국자이십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용자를 우리를 수륙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 영광으로 천고일립도 파괴쳐 설레이던 70여년전 2월의 환희가 벽차게 안겨온다.

《아 조신아 겨레들아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린다》,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독립조선의 대통을》 ...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였고 김일성민족의 대를 만대에 이어놓는 역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 역사의 행운이었다.

역사의 그날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또 한번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태양민족의 존엄을 누리에 떨쳐며 백색의 한길로 용용히 전진해왔다.

정치사상장군, 군사장군, 일심단결의 장군...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래상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실 천만군민의 마음 백두산밀영외향집으로 끌려이 달라고있다. 본사기자 김정명 찍음

참으로 금지없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위용은 백두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영도로 안아올리셨기에서 인민의 심금을 더욱 울린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업일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숙히 하신 말씀이 세기의 하늘가에 매아리린다.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정녕 백두산은 또 한번의 걸출한 선군명장을 높이 받들어올린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을 언제나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이끄시어 백색의 역사를 장쾌히 역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엔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성스러운 곳으로, 역사의 모진 광풍을 산산이 부서버리는 신념의 기둥,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굳건히 간직되어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업일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백두대지에 역사의 자욱을 편편히 새기시었다. 그 날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끝없이 펼쳐진 백두의 밀림속을 지나 백두산을 눈앞에 바라보며 걸으니 고향집대문을 열고 들안을 들어서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흰 추적뿔의 총성 드높던 백두전역에 비범하고도 특출한 위인상을 력력히 새기시었다.

장장 수십정사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행군길을 대를 이어 헤쳐가시는 역사의 행군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것은 백두의 성스러운 불은기었고 그이께서 높이 펼치신것은 백두의 기상과 담력이었다.

만남을 맞바치면 백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신념으로 새겨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의 기상과 담력, 배짱으로 역사의 모진 시련을 단호히 쳐갈기며 백두산을 떨치시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었다.

엄혹한 난관이 접쌍일수록 백두산에 으르르 백두의 성스러운 불은기를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휘날려갈

철의 의지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이 천만군민의 심금을 울린다.

백두가 교체되는 시기 또다시 백두산의 눈보라를 헤치고 항일의 전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역사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숙히 말씀하시었다.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치는 바로 백두산의 정정입니다!

백두의 담력과 기상으로 역사의 시련을 부서버리고 기어이 성스러운 불은기를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휘날리시려는 백두산장군의 신념은 그토 각지의 영웅과 투철하였다.

강성병영의 진군소리 드높이 울려던 주제 91(2002)년 11월 어느

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수령님의 혁명적신념과 배짱으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 역사의 의지를 선언하시었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잠꼬를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것이 우리 당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입니다!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 역설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지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고수하고 구원해오신 정치신조이다.

그토록 투철한 신념을 지니신 백두산장군이시기에 그이께서 언제나 계산 곳은 조국수호의 최전선이다.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치고헤치신 험준한 그 길에는 원수들의 총구가 도사리고 불과 불이 못부딪치는 준엄한 대결장 판문점조차도 있었고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가파로운 칼바람길도 있었으며 외진 섬초소를 찾아 헤치신 통파사나운 날바다길도 있었다.

이 땅의 끝없는 전선길은 백두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헤쳐갈수 있는 성스러운 선군혁명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백두산을 안고계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어느해 광명성절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장군님께 일꾼들은 온

나라의 인민들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걸고계시는 장군님의 건강을 걱정하고있는데 대하여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하늘에 닿은 인민의 넘편을 절감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자신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있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궁지로 여기고있다고 하시며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우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깎고라 다 바쳐 일하려는것이 나의 드림없는 각오이며 의지이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찰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계속하려고 한다!

역사의 그 의지를 안으시고 이 땅에 펼쳐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영도와 헌신의 세계를 어이 다 헤아릴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헤치신 현지지도강행군길은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610여리!

그이께서 찾고찾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290여개!

선군혁명천만리길은 전대미문의 역경속에서도 오로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치고헤치시며 그토록 궁지높이 펼치신 승리와 전진, 번영의 길로 빛나고있다.

걸출한 정치인로,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이아 말로 인후정처사에 미증유의 업적으로 빛나는 영웅사시사적인 혁명역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업적을 높이 칭송하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은 김정일동지의 고향이며 그의 담을 키우총 요람이라고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나 성격은 보아도 그렇고 취미와 습관을 보아도 그렇고 그는 신념이 백두산을 닮았다고,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이 그의 온 정신과 온몸에 차넘치고있다고 격찬하시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백두산의 존엄은 세기의 하늘가에 더욱 높이 펼쳐지고 태양민족의 기상은 온 세상을 진감시킨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내 나라, 내 조국강산에 강성국가의 새날을 만드신 안아올 태양민족의 의지를 담아 이 땅의 천만군민이 심장속에서 부르며 김정일장군한가 시대의 송가로 끌고 매아리린다.

본사기자 김 인 선

백두산밀영이 전하는 이야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재보

백두산밀영외향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사용하시던 나무장, 나무편총, 나무방망이를 비롯하여 놀이감들과 항일의 녀루사들이 정성껏 마련해드린 죽무이포단이 소중히 전시되어있다.

오늘도 뜻깊은 사적물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볼수록 주제 31(1942)년 6월 어느날이 뜨겁게 돌이켜진다.

이날 항일투사들은 아버지수령님을 백두산밀영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사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송구스러움이 자리잡고있었다.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우리 장군님께 변변한 포탄 하나 마련해드리지 못한 자책감때문이었다.

항일투사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듯

소백수굴의 새벽길

백두산위인들께서 백두산밀영의 소매수굴에 계시던 주제 32(1943)년 3월 어느날 이른새벽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오솔길을

그들을 뜨겁게 추억하시고 나서 우리들앞에는 먼저 한 혁명동지들의 묻기처럼 강도 일체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민이 바라는 사회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뜻깊은 기념사진

주제 82(1993)년 8월 어느날이었다.

백두산밀영외향집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친필 송시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이윽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강사들을 곁에 부르시며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고는 눈보라를 자자고 하시는데였다. 순간 강사들은 너무나 기쁘게 웃으며 주머니 안다 싶이 아버지수령님의 곁에 가섰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동무들과 기념사진을 찍는것은 동무들이 앞으로 김정일 동지의 영도를 향할때를 위하여는 의미에서라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부러움과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그후 이것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날의 사연을 들으시고

정일봉의 우리소리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희세의 천출위인에 대한 찬없는 그리움이 더욱 끓여넘치고있다.

백두산의 아름다 탄생하시어 백두의 녀과 기상으로 우리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시어 빛내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힘입어 어떤 노래 《정일봉의 우리소리》의 선율이 귀전에 울려온다.

정일봉에 우뢰우니 천하가 드르름 먹구름은 갈라지고 눈새라 쏟아진다 김정일장군님 불호성령으로 번개가 내달라는 끝마다 꺼여진다 ...

구절구절 새겨갈수록 백두의 신념과 배짱, 천만만화하는 군사적지략으로 천만대적을 줘라파라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강단미대한 기상이 어려와 가슴이 찡이든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영도를 조국과 혁명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 가야 합니다.》

2월이든 천만군민의 마음 그 언제나 백두산으로 달린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설정을 펼쳐 천만군민을 맞이 준다.

2월의 햇빛아래 눈부신 백두산의 설정이 전하는 다음의 감동있는 이야기 있다. 주제 77(1988)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 밀영외향집을 찾으신 뜻깊은 날이었다.

역사의 이 순간을 기념하여 일꾼들은 그이께 영원한 화폭이 되게 고향집을 배경으로 독사진을 찍으실 것을 아뢰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꾼들이 울리는 간절한 청을 마다하시였다.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력사에 남을 독사진이란 바로 이런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미세극주의가 핵무기를 휘두르며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려고 이리메마냥 달려 들던 20세기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류의 향상과 이 조국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그때 온갖 도전에선 박멸로 대답한다는 담력과 배짱으로 미래와의 전면대결전을 온 세상에 선언하시였다.

전국, 전민, 전군에 전진상태를 선포한 위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하달, 세계를 놀래운 핵무기전파방위조약에서 탈퇴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 선제공격은 미군대의 독점물이 아니며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을 통째로 날려버내겠다고 한 우리 혁명무력의 대담은 천막차, 도발자들에게 내리는 폭탄선언이었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터쳐도 공화국의 어떤 생명보다 위력하지 못할것이다.》, 《조선의 결정은 미행정부를 소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세계의 경탄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불과 불의 대결장인 최전선초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시찰소식

은 또 얼마나 온 행성을 뜨겁게 진감시켰던가.

《백두산의 명장이신 김정일장군께서 최전연을 시찰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연합세력의 고립, 압살이 최절정에 이른 이때 적들의 거리가 1200m에 불과한 최전연에 진출키를 하는 김정일장군이 뚝뚝이 나타났던가. ... 그이께서 나오시자 그들은 어디론가 다 품무니를 사리고말았다.》

그렇다. 그 어떤 광풍이 불어도 드높지 않은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앞에 적들의 책동은 산산이 부서졌다.

정녕 우리 장군님의 기상은 백두산의 기상이고 그의 신념의 선언은 정일봉의 우뢰소리였다.

강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명장을 높이 모시어 언제나 백색의 력사를 새겨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천봉으로 지니신 정애하는 흰수년 계시어 정일봉의 우뢰소리는 원수들의 머리에 철추를 내리며 승리의 그날까지 영원히 울려갈것이다.

강 원 남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광명성찬가》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이할 때면 온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수 지으신 《광명성찬가》를 마음속으로 읊으며 가슴을 뜨겁게 적시곤 한다.

불멸의 위인찬가를 심장에 새길수록 송시를 지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자신께서는 한평생 혁명을 하여오지 않던 오솔처럼 보람을 느끼분지였다 하고 하시며 그것은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우리 혁명이 반드시 승리 한다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하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의 지도자로써의 품도와 자질을 훌륭히 갖추고있습니다.》

백두광명성, 조용히 불려만 보아도 백두산이 낳은 천출위인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빠차온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백두광명성, 위대한 태양의 모습으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시었다.

백두산장군님께서 솟아 어둠던 강산에 력사의 새봄이 펼쳐졌고 백두산마루에 광명성이 높이 솟아 인류의 영원한 봄이 꽃피었다.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인적풍모를 지니시고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만이 아닌 세계 진보적인류가 21세기를 이끄실 위대한 태양으로 으르르 일어나 높이 칭송하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에 넘쳐 그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갈 인민의 충정을 담은 백두산대국의 장창한 앞날을 축복해주며 《광명성찬가》가 팔았다.

회세의 천출위인시 전하는 김정일 동지의 영도따라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앞날에 《광명성찬가》는 영원히 울려퍼져갈것이다.

본사기자 강 철 남

유서깊은 성지에 와서 찍는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있던 그들이었다. 록음이 절은 8월의 고향집은 아름답게 그치지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에서 사전을 찍는것은 술이 무성할 여름철보다 설정이 펼쳐진 겨울철이 더 좋다고 하시며 일꾼들은 그에게 그의 심정을 헤아릴수 있었다.

한편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2월의 백두산 설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날다름 감동으로 겨울을 사랑하시는것인가 일꾼들에게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내리는 평양의 설정을 바라보시며 자신께서는 눈덮인 백두산에서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겨울이 마음에 든다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었지만 자신께서는 겨울이 좋다고, 자신께서는 눈덮인 겨울 길을 걸을 때면 백두산밀영외향집을 생각한다고, 백두산은 겨울에 보아야 볼만하다고 하시며 교시가 생생히 떠올랐다.

백두산의 눈보라속에서 탄생하시고 그 엄혹한 실천공속에서

백두산장군으로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백두산의 설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였고 의지였으며 정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의 설정에 깊이 침투되어있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나는 백두산의 설정을 자주 그려 보곤 합니다. 백두산의 설정을 생각

하느라 하면 눈보라를 헤치고 전진하는 데로의 앞장에서 휘날리는 불은기가 눈앞에 삼삼하게 어려오고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유격대행진곡이 랑랑히 울려옵니다. 백두산의 설정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

백두산의 설정을 늘 가슴에 안고 불라는 혁명열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 위대한 장군님,

백두의 정기와 기상이 펼쳐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팎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항일의 실천공을 헤쳐주시어 찾아주시어 우리 조국을 끌어올릴 빛내어주시어 늘 잊지 않는 신념과 의지가 새겨져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